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운영 현황 조사 연구

-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A Survey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on Operations of Independent Publication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김 보 일 (Bo-il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해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초 록

최근 독립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 요구의 증가로 공공도서관을 통한 독립출판물의 장서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의 다양한 형태 사항과 서지정보 제공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장서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 현황 분석과 독립출판물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독립출판물 목록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공동목록시스템 구축, 독립출판물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 독립출판물의 ISBN, ISSN, CIP 발급 지원, 유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collection operation of independent publications through public libraries, this study conducted a status analysis on independent publications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ff in charge of independent publications in order to suggest ways to effectively manage independent publications. As a result, it was deduced that the measures need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dependent publications are construction of joint cataloging system for building and sharing independent publications catalog in public libraries; platform for collecting various information of independent publications; support for ISBN, ISSN, CIP issuance of independent publications;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키워드: 독립출판, 독립출판물, 공공도서관, 장서운영, 자료조직

Independent Publishing, Independent Publications, Public Library,
Collection Operations, Resource Organization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위원(boil58@hanmail.net / ISNI 0000 0004 6815 1032)
논문접수일자: 2019년 11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399-418,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399>

1. 서론

최근 기성 출판물과는 달리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다양한 형식과 표현 방법을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출판과정을 거쳐 출간하는 독립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독자들은 자신의 취미에 따라 감성을 자극하는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입을 통한 소비와 함께 직접 독립출판물 생산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오프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판매 급감에 따라 지역 서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은 계속 증가하여 독립출판물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동네지도』에서 제공하는 ‘함께 만드는 동네 서점지도’에 등록된 독립서점 현황¹⁾을 보면 독립서점은 2015년 9월 처음 독립출판물서점을 수록한 웹 지도 공개 이후 매년 약 100개 내외 증가하여 2018년 현재 416개의 독립서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97개의 독립서점이 2018년에는 416개로 약 4.3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185개·경기 52개·인천 14개로 수도권 지역에 251개(60.3%)의 독립서점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2016년 강원을 제외하고 독립서점 현황은 전년도와 같거나 증가하고 있다. 일부 독립서점 운영자에 따르면 ‘함께 만드는 동네서점지

도’에 등록되지 않은 서점들이 많아 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600개 이상의 독립서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제주 그리고 이외 지역으로 약 1/3씩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페어도 사회적 관심 만큼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unlimited edition)’와 ‘퍼블리셔스 테이블(publisher’s table)’은 국내 최대 아트북 페어로 국내외의 소규모 출판물과 아트북 등을 제작자나 작가가 직접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독립출판물 페어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 지역에 ‘산방산 아트북 페어’, ‘제주 북 페어’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제주 북 페어의 경우 탐라도서관이 주최·주관이 되어 독립출판서점 및 제작들과 함께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독립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는 공공도서관을 통한 독립출판물의 이용 요구와 함께 도서관의 특화도서관으로써 단위 공공도서관을 통한 독립출판물의 수집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출판물은 국민 독서량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 심화와 함께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 또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이용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출판물 제작을 위한 강좌, 독립출판물 저자 강연, 독립서점 탐방 등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다각화 하는데 장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동네서점. [online]. [cited 2019. 9. 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05317&memberNo=1990002&navigationType=push>>

그러나 독립출판물은 내용 및 표현 방법, 크기(판형), 제본 상태 등이 다양하고 저자 및 출판사항의 확인이 불분명하며 ISBN 또는 ISSN을 부여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과정에서 제외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거나 장서관리를 위해 편목 하는 과정에서 해당사항을 미입력 또는 생략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문서화된 장서관리 정책에 독립출판물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장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일반도서와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장서관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독립출판물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을 포함 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새로운 형태의 장서로 인식하거나 장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출판물에 대한 장서관리의 인식이 도서관 관계에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과 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장서관리 하는 데 있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서를 통제하여 일반도서와 동일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준민(2018)은 연구를 통해 지식 생태계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소비자로서의 읽기만이 아닌 글쓰기와 읽기 과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방안으로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독립출판물은 출판물의 기획에서부터 제작과 홍보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출판할 수 있게 되면서 유튜브(youtube)와 같이 새로운 콘텐츠이자 다양한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출판 시장 확대에 따른 독립출판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출판물은 기성 출판물과 달리 이용자의 미시적인 취향 및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특정 주제와 범위에 대하여 아카이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독립출판물은 새로운 콘텐츠이자 장서의 유형으로 분명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정서적인 의미와 보존적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장서로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장서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형태적인 사항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과 서지정보 제공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장서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 및 제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독립출판물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로서 독립출판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 독립출판물을 특화도서관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8개관의 독립출판물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담당자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독립출판물의 장서관리 실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장서로서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해

2.1 독립출판과 독립출판물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출판 시스템을 통해 출간된 독립출판물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렵이라고 볼 수 있다. 1세대 독립서점으로 알려진 '유어 마인드(your-mind)'는 2009년 문을 열며 국내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스토리지북앤필름(storage book and film)'은 2010년에 '카메라 스토리지'로 시작하여 2013년에 현재의 이름인 스토리지 앤 북 필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독립출판물이 알려지게 되었다. 2015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립출판에 대한 소개와 독립출판물을 전시하는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 특별전을 약 1달 간 개최하면서 도서관계에서도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독립출판물을 생산하는 독립출판은 주류 출판시장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독립출판(independent publishing), 출판사가 개입하지 않고 제작자가 스스로 기획·제작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출판(self-publishing), 소규모로 제작하고 유통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출판(small publishing)이라고 불리고 있다(권수빈 2016, 843). 풀뿌리독립출판협회 설립위원회에서는 독립출판에 대하여 자본의 논리와 구속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창의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출판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풀뿌리독립출판협회 설립위원회 2019).

그리고 독립출판물(independent publications)

은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콘텐츠로 직접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유통, 홍보 등 출판 전 과정에 참여하여 기존 출판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제작, 유통하는 출판물을 의미한다(구선아, 장원호 2018, 105). 한편으로 독립출판물은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을 온라인 기록 수단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기록하고 접근으로 공유하던 것에서 인쇄 매체를 통해 기록하고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공유하게 된 기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외 독립출판물은 지속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가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여가 유형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취미, 관심사 등의 여가를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기존 출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 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유로운 형태로 출간하는 것이 독립출판이며, 독립출판을 통해 출간되는 출판물이 독립출판물로 새로운 유형의 여가 일종이며 일상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독립출판물의 특징

2.2.1 독립출판물의 형식

독립출판물의 형식은 앞서 개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성 출판물의 일반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며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먼저 독립출판물의 출간하는 부수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작비의 기준을 1,000부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출판시스템에서와 같이 대량 인쇄하지 않는다. 독립출판물은 생산 후 소비 즉 판매 부수를 예측할 때 유통 체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량만 인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100부 미만이다. 그리고 독립출판의 과정에서 기획, 디자인, 인쇄, 포장, 홍보 까지 대부분 1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량만 인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출판물은 처음 구입할 수는 있지만 재구매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독립출판물의 인쇄 부수가 소량이지만 크기(판형)와 제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 출판물의 판형은 B6(4·6판), B5(4·6배판), B4, 타블로이드판(4·6배배판), A5, 국판, A4, 국배판, A6, 국반판(문고판), B18판, 크라운판, A40절(3·5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출판물의 경우 정해진 크기가 없다. 제작자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를 결정해 제작하기 때문에 규정된 크기가 별도 없으나 그 가운데 독립출판물 판형 중 많이 사용된 경우는 A5, B5이며 그 외에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권수빈 2016, 848). 독립출판물의 제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제본의 유형은 무선제본(perfect-bound), 양장제본(case-bound), 스프링 제본(spiral-bound), 중철 제본(saddle-stitch) 등으로 구분된다. 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 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선제본 또는 양장제본으로 된 것들을 입수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책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제본 유형의 책들이다. 하지만 독립출판물의 경우 제작자의 제작비용 절감과 손쉬운

형태의 제본을 위해 스프링 제본이나 중철 제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프링 제본의 경우 간단한 기기와 스프링만 있으면 손쉽게 제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출판물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제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POD²⁾ 방식을 통해 저가로 소량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 책들과 같이 무선제본 또는 양장제본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이외 실로 한 쪽 부분을 매는 방식은 재래식 제본이나 제본을 하지 않고 낱장으로 두거나 병풍처럼 제본하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독립출판물의 크기(판형)와 제본 유형의 다양성은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운영하는데 사서에 의한 관리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열람 및 대출을 통한 활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독립출판물 담당자가 수서 시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수용하는 것에 제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2.2.2 독립출판물의 주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진분류법에 따른 주제와는 달리 독립출판물은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 등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자유롭다. 때문에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법이 아닌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5년 2월 25일~3월 31일 까지 약 1개월 간 독립출판물을 예술·문학·사진·뉴스컬처 등 400여종 586권을 소

2) POD(print on demand): 주문형 인쇄를 말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량 주문 인쇄가 가능하다.

개하는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이라는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독립출판물을 도서관 십진분류법과 독립서점 방식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별도의 십진분류법을 창안해 전시된 독립출판물을 구분하였다(〈표 1〉 참조). 주제는 10가지 상위 주제 ‘00. 총류, 10. 예술, 20. 문학, 30. 사진, 40. 디자인, 50. 일러스트, 60. 만화, 70. 라이프 스타일, 80. 사회, 90. 유스컬처’와 19가지 하위 세부 주제로 구분되고 있다. 가장 많은 도서가 분류되고 있는 주제는 00. 총류(도록, 기록, 사전)로 89권이며, 20. 문학(시, 소설, 에세이) 74권 · 30. 사진 73권, 60. 일러스트(드로잉) 67권 등 순으로 분류 되고 있다.

스토리북엔필름에서는 텀블벅 프로젝트로 후원을 받아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발행된 독립출판물 1,746권에 대한 인디북 인덱스 설명서인 『INDIE BOOK INDEX 2016』을 발행하였다. 『INDIE BOOK INDEX 2016』에는 독립출판물 1,746권에 대하여 ‘이름, 출판레이블,

판형, 페이지수, 발행년도, 종류, 간략한 소개’로 구성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NDIE BOOK INDEX 2016』에서는 독립출판물 1,746권에 대하여 8가지 주제 ‘a: anthology 시집, b: besides 기타, e: essay 에세이, i: illust book 일러스트 북, m: magazine 잡지, n: novel 소설, p: photo book 사진집, t: travelogue 여행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렇듯 독립출판물은 주로 문학, 영화, 예술, 서브컬처, 취미, 가족, 요리, 일상, 젠더, 지역, 노동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다루고 있다(권수빈 2016, 850). 이는 독립출판물이 주로 개인의 취미와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실제 독립출판물을 수집하고 있는 일선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법으로 독립출판물의 주제를 분류하는 것에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워하고 있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 전시 사용 주제별 현황

주제	00. 총류	10. 예술	20. 문학	30. 사진	40. 디자인	50. 일러스트	60. 만화	70. 라이프 스타일	80. 사회	90. 유스컬처	계
하위 주제	도록, 기록, 사전	미술, 비평	시, 소설, 에세이	-	건축	드로잉	그래픽 노블	여행, 요리, 패션	지역, 커뮤니티	서브컬처, 음악	
권수	89	61	74	73	49	67	30	35	48	60	586

〈표 2〉 『INDIE BOOK INDEX 2016』 주제별 현황

주제	a: anthology 시집	b: besides 기타	e: essay 에세이	I: illust book 일러스트 북	m: magazine 잡지	n: novel 소설	p: photo book 사진집	t: travelogue 여행기	계
권수	75	169	134	277	768	49	201	73	1,746

3.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최근 독립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 요구의 증대에 따라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수서하여 장서에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을 별도의 장서로 구분하지 않고 희망도서로 입수를 하거나 사서가 정기수서 시에 일반도서와 함께 수집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독립출판물에 대한 특성상 직접 실물을 보고 수집해야 하는 점에 있어 독립서점 현황에 서와 같이 독립출판물 구입이 용이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독립출판물을 도서관 장서로 특화하여 수집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출판물을 수집하여 특화서비스로 서비스 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그 담당자를 대상으로 독립출판물 장서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장서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총 10곳에서 독립출판물을 특화도서로 구입하고 있었으나, 독립출판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 특정 이용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2곳을 제외한 8곳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조사하였다.

단, 연구대상을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 공공도서관으로 제한 한 점과 조사 대상 도서관의 수가 8개에 불과한 것은 전체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볼 때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 독립출판물 판매처인 독립서점의 분포지

역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대상 설정은 의미가 있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증적 방법을 통해 연구 하였다.

독립출판물의 장서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해 연구자가 현장을 직접방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자가 개별 공공도서관을 직접방문 하여 독립출판 담당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평균 40분~5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독립출판물 담당자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의 방향과 심층인터뷰 내용에 대한 가이드 역할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진행 시 동의를 받고 녹취를 하였으며 담당자들로부터 심층인터뷰 질문에 대해 답변이 부족했다고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 전자메일을 통해 추가로 정리된 답변을 받아 녹취록과 함께 분석 하였다.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및 담당자에 관한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및 담당자 현황

구분	소재 지역	설립주체	운영주체	독립출판물 수집 시기	담당자 연령	담당자 성별	담당자 사서 근무 경력
A도서관	서울	지자체	위탁	2016년 11월	30대	여	6년 9개월
B도서관	경기	지자체	직영	2019년 06월	40대	여	22년 0개월
C도서관	인천	지자체	직영	2019년 04월	30대	여	10년 0개월
D도서관	서울	지자체	직영	2017년 11월	30대	남	11년 0개월
E도서관	서울	지자체	위탁	2016년 11월	40대	여	7년 0개월
F도서관	서울	지자체	위탁	2018년 07월	30대	여	4년 3개월
G도서관	인천	지자체	위탁	2018년 12월	40대	남	12년 0개월
H도서관	인천	지자체	지역	2017년 08월	30대	여	5년 10개월

3.3 연구 내용

연구 방법에 따른 조사 내용으로 독립출판물 소장 공공도서관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독립출판물 운영현황(독립출판물 수집 시기 및 계기, 독립출판물 장서현황, 독립출판물 수서 및 편목 관련 사항 등), 독립출판물 장서 이용 현황(독립출판물 관의 대출 여부 및 실적, 독립출판물 관련 서비스, 독립출판물 이용 계층 등), 도서관 일반사항(설립주체, 운영방식, 소재 지역, 담당자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독립출판물 담당자 대상 심층인터뷰에서의 질문은 독립출판물의 장서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출판물의 이용 특성(이용자의 독립출판물 이용 이유와 정보요구), 독립출판물의 장서관리(독립출판물 장서관리 및 홍보 방안), 독립출판물의 자료조직(독립출판물의 주제 분류 및 편목), 독립출판물 제공 서비스 개선 방안(독립출판물 제공에 따른 필요 사항과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독립출판물 소장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4.1.1 응답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특성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소재 4곳, 인천 소재 2곳, 경기 소재 2곳이었다. 독립출판물을 수집한 시기는 2016년 11월 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4.1.2 독립출판물 장서운영

(1) 독립출판물 수집계기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수집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수집계기를 다음의 〈표 4〉에서와 같이 보면 도서관 스스로 이용자들의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독립출판물 수집에 용이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도서로 제공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이용자들의 독립출판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도서관 내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성이 제기됨으

〈표 4〉 독립출판물 수집 계기

구분	독립출판물 수집 계기
A도서관	• 최근 대중들의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집(도서관 의지)
B도서관	• 우리도서관에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글쓰기 기초, 집필, 편집)에 참가하고 있는 예비 작가들이 실제 출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집(프로그램 연계)
C도서관	• 「도서관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집(이용자 요구)
D도서관	• 지역 내 독립출판물 취급 서점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특화 자료 구성의 필요성과 새로운 도서 및 출판문화를 도서관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수집(도서관 의지)
E도서관	• 지역주민들에게 기존의 도서 외에 개성이 강한 독립출판물 도서를 소개하여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도서관 의지)
F도서관	• 지역적으로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독립서점과 인접해있고, 다양한 도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독립출판물을 수집(도서관 의지)
G도서관	• 도서관 창작콘텐츠 제작 및 이용자분들의 독립출판물 비치 문의로 수집(이용자 요구)
H도서관	• 출판특화도서관 운영의 일환으로 독립출판물을 수집(도서관 의지)

로 독립출판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계기는 도서관 및 이용자 모두의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용요구 따른 것으로 새로운 장서로서 독립출판물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독립출판물 소장현황

독립출판물 소장현황을 다음의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8월 현재 조사 대상 8개

공공도서관은 전체 1,973권의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1관당 평균 247권 수준으로 전체 장서 평균 101,135권 대비 0.2% 수준이다. 개별 공공도서관별로는 최저 17권부터 최대 258권의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 나타나 공공도서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제별 소장현황에서 가장 많은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야는 문학이 평균 176권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30권, 역사 13권, 기술 과학 10권, 사회과학 8권, 총류 7권 순으로 나

〈표 5〉 독립출판물 소장현황

구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A도서관	2	0	0	0	0	0	2	0	12	1	17
B도서관	3	0	0	7	0	4	9	0	229	6	258
C도서관	2	0	0	4	6	8	14	2	406	16	458
D도서관	16	3	0	31	2	33	103	0	317	56	561
E도서관	6	0	0	4	0	9	19	3	86	7	134
F도서관	6	1	0	6	0	5	18	0	93	2	131
G도서관	7	0	0	5	3	8	29	2	102	8	164
H도서관	10	6	0	8	3	10	42	0	160	11	250
계(평균)	52(7)	10(1)	0(0)	65(8)	14(2)	77(10)	236(30)	7(1)	1,405(176)	107(13)	1,973(247)

타났다. 반면, 주제별 소장현황에서 가장 적은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야는 종교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전혀 소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철학·언어가 1권, 순수과학 2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독립출판물이 주로 개인의 일상과 취미 등을 다루고 있는 측면과 독립출판물을 통한 표현이 용이한 문학과 예술 분야의 소장 장서가 많은 것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독립출판물 수서현황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출판물의 수서유형에 있어서 기성출판물의 유통시스템과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수서와 현장수서를 병행하는 공공도서관이 5곳(62.5%)로 가장 많았으며,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서하는 공공도서관은 2곳(25.0%)로 나타났다. 이외 각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도서를 수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수서 유형인 온라인 수서를 하는 공공도서관은 1곳(12.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는 독립출판물을 수서하는데 그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도서 정보로는 수서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직접 현장에서 독립출판물 실물을 보고 수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6〉 독립출판물 수서유형

수서유형	도서관(%)
온라인 수서	1(12.5)
현장 수서(독립출판물 판매 서점 직접 방문)	2(25.0)
온라인 수서 + 현장수서	5(62.5)
기타	0(0.0)
계	8(100.0)

다음으로 해당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또는 수서지침 등 문서화된 정책 가운데 독립출판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공공도서관 중 5개 공공도서관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3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 3곳에서는 장서구축 목적, 예산, 자료선정기준, 자료선정도구에 대하여 독립출판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독립출판물에 대해 공공도서관 장서로서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문서화된 정책상에 독립출판물을 도서관 장서로 규정하는 것에는 다소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독립출판물 관련 문서화된 정책 여부

문서화된 정책 여부	도서관(%)
포함하지 않고 있다.	5(62.5)
포함하고 있다.	3(37.5)
계	8(100.0)

마지막으로 독립출판물을 수서 할 때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로는 판형(크기), 서명·주제 분류, 색인어(키워드)·제본주기사항 순이며, 기타로는 주제 및 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표 8〉 참조). 이는 기성출판물에 비해 독립출판물에서는 다소 확인이 모호하거나 불가능 사항과 다양한 형태적 특성에 해당되는 요소들로 편목 시에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이유 일반도서의 편목을 아웃소싱 하는 것과 독립출판물의 경우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관에서 사서가 직접 편목을 하는 곳이 전체 8곳 중 5곳이며, 기타 2곳도 독립출판물의 편목에 대한 아웃소싱이 중단됨

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는 자관의 사서가 직접 편목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8〉 독립출판물 수서 시 중요 판단 요소 (중복응답)

판단 요소	도서관(%)
서명	2(18.2)
주제분류	2(18.2)
판형(크기)	3(27.3)
색인어(키워드)	1(9.1)
제본주기사항	1(9.1)
기타(주제 및 내용)	2(18.2)
계	11(100.0)

〈표 9〉 독립출판물 편목 방법

편목 방법	도서관(%)
자관 사서가 직접	5(62.5)
아웃소싱	1(12.5)
기타	2(25.0)
계	8(100.0)

이를 통해 보면 독립출판물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에서 새로운 장서로 필요성을 갖고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출판물을 수집시기가 짧아 소장 독립출판물 장서가 적으며, 장서개발정책 또는 수서지침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장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독립출판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서와 자료조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포용하는 데에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4.1.3 독립출판물 장서이용

(1) 독립출판물 관외 대출 현황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외 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10〉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 공

공도서관 8곳 모두 관외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이 기설 출판물과는 달리 제작 수량이 적고 추후 복본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외 대출로 인하여 분실 또는 망실 시 대체하기 위해 복본을 구입하여 1권은 관내 열람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권은 관외 대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0〉 독립출판물 관외 대출 여부

관외 대출 여부	도서관(%)
예	8(100.0)
아니오	0(0.0)
계	8(100.0)

독립출판물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에서와 같이 2019년부터 대출을 시작한 G도서관과 2019년부터 독립출판물을 수집하기 시작한 B·C도서관을 제외한 5곳은 2018년 한 해 913권이 대출되었으며 장서회전율은 평균 0.84으로 산출되었다. 반면,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8곳의 독립출판물을 포함한 인쇄자료자료는 1,433,023권 대출되었으며 장서회전율은 평균 1.85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도서관 8개관 모두 독립출판물을 수집한 기간이 최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장서의 규모가 작고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독립출판물의 특성상 내용의 분량이 적고 개인 취향과 관심사를 다루기 때문에 대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점과 독립출판물에는 유아 및 어린이도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순 대출현황 결과로만 이용률을 판단하는 것인 한계가 있다.

〈표 11〉 독립출판물 대출 현황

구분	전체 소장도서			독립출판물		
	소장현황	대출현황	장서회전율	소장현황	대출현황	장서회전율
A도서관	68,270	174,995	2.56	17	34	2.00
B도서관	21,326	23,569	1.11	258	-	-
C도서관	100,763	144,439	1.43	458	-	-
D도서관	118,359	504,701	4.26	561	404	0.72
E도서관	49,750	114,493	2.30	134	91	0.68
F도서관	159,862	147,344	0.92	131	128	0.98
G도서관	88,845	77,423	0.87	164	-	-
H도서관	169,488	246,059	1.45	250	256	1.02
평균	776,663	1,433,0230	1.85	1,093 (미대출도서관 제외)	913	0.84

(2) 독립출판물 이용 대상 현황

독립출판물의 주요 이용 대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연령층에서는 조사 대상 도서관 모두 30대가 독립출판물의 주된 이용자 연령층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된 이용자의 성별에서도 모두 여성으로 응답하였다(〈표 12〉, 〈표 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주로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되는 일반도서의 이용 경향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이 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독립출판물이 주로 젊은 연령층에게서 관심이 증대되고 이용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독립출판물의 주이용 대상이 30대 여성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즉,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계층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서개발을 통한 독립출판물의 활용이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2〉 독립출판물 이용 대상(연령)

연령	도서관(%)
10대 이하	0(0.0)
20대	0(0.0)
30대	8(100.0)
40대	0(0.0)
50대	0(0.0)
60대 이상	0(0.0)
계	8(100.0)

〈표 13〉 독립출판물 이용 대상(성별)

연령	도서관(%)
여성	8(100.0)
남성	0(0.0)
계	8(100.0)

(3) 독립출판물 관련 서비스 현황

독립출판물 관련 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기본적으로 독립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 및 대출(50.0%)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독립출판물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를 통한 북큐레이션 서비스(37.5%)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독립출판물에 관심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독립출판물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강좌 형식 프로그램(6.3%)과 독립출판물 관련 참고봉사(6.3%)를 제공하고 있다(〈표 14〉 참조). 한편, 공통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저자 특강 등의 행사 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 활동의 경우 현재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 증대와 개인의 취미 및 관심사에 따른 독립출판물의 이용 경향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4〉 독립출판물 관련 서비스 현황 (중복응답)

관련 서비스 현황	도서관(%)
독립출판물 열람 및 대출	8(50.0)
강좌 형식 프로그램 제공(2회차 이상 강좌로 독립출판물 제작 워크숍 등)	1(6.3)
행사 형식 프로그램 제공(저자 특강 등)	0(0.0)
북큐레이션(전시 포함)	6(37.5)
독립출판물 관련 참고봉사	1(6.3)
독서동아리 활동	0(0.0)
기타	0(0.0)
계	16(100.0)

이를 통해 보면 독립출판물은 현재 수집시기가 짧고 소장 장서가 적기 때문에 전체 소장도서 대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이용 대상인 젊은 연령층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독립출판물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2 독립출판물 담당자 심층인터뷰

4.2.1 독립출판물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인터뷰 대상 8개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담당자는 모두 사서이며 사서 근무 경력이 평균 9.75년이다. 연령은 8명중 3명이 40대이며, 5명은 30대이고 성별은 여성이 6명, 남성이 2명이다.

4.2.2 독립출판물의 이용 특성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독립출판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독립출판물이 기성 출판물과 달리 신선한 주제와 새로운 형식 그리고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에 점차 ‘1인’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 생활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들이 출판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고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내용, 형태의 책들을 보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독립서점 등을 방문하여 독립출판물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에는 기성작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다양성을 엿볼 수 있기도 하고, 정제되지 않은 낱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통해 좀더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꼭 해야만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아는 독자들이 독립출판물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대감과 형식의 신선함이 이용자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기성 출판사의 책 두께보다 얇고 크기의 다양함으로 골라 읽는 재미가 있으며 희소성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유발이 된다고 봅니다.” (C도서관 담당자)

“기존의 도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도서에서는 작가라는 인지도나 많은 부분을 정례화하거나 틀에 맞춰서 출판되었다면, 독립출판물은 물론 인지도 있는 작가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형식이나 틀에 맞춰서 작성한 것이 아닌 작가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작성한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이런 독립출판을 읽으면서 ‘나’도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생각에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G도서관 담당자)

그리고 독립출판물의 이용자 정보요구 충족 정도와 관련해서는 독립출판물이 기성 출판물과 달리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공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에 대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수집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직은 독립출판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용자

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물을 통해 정보요구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독립출판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서관의 홍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정보요구의 측면으로 만족도의 충족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기성 도서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출판물 자체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출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독립출판물 서비스는 다양한 책의 출판 흐름을 알리는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C도서관 담당자)

“다양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방문하는 만큼 독립출판물 도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도 있고 또 독립출판물 도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독립출판물 도서를 알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도서관 담당자)

4.2.3 독립출판물의 장서관리

독립출판물에 대한 장서관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리상의 어려움 점으로 독립출판물의 다양한 형태사항과 소량 생산에 따른 재구입 불가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본 부실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높고 재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도서 구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점 때문에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처음부터 복본을 구입하여 1권은 대출용으로 활용하며, 나머지 1권은 열람용으로만 비치되고 있다. 복본 구입을 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독립출판물의 관외 대출에 따른 파손 및 분실 우려로 인해 자료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통체계가 미흡하여 온라인을 통해 독립출판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기성 출판물유통시스템에서 독립출판물이 취급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독립출판물을 수서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출판물들에 비해 장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 우려가 좀 더 크리라 예상됩니다.” (B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의 매력의 희소성이 훼손 또는 분실 시 대체할 도서가 없다는 점으로 된다는 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C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은 일반출판물처럼 기성 출판유통시스템을 통해 유통되지 않고 개별적인 제작자가 직접 서점에 점에 입고하는 형태이다 보니 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을 구입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D도서관 담당자)

“판형이 워낙 다양하고 온라인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출판물 도서를 수서

하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온라인과 현장수서가 꼭 동반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도서관 담당자)

“일단 입수되면 관리방법은 일반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 시 재구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염려되기는 합니다.” (H도서관 담당자)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북큐레이션을 통한 전시, 독립출판물 작가의 저자강연, 독립출판물 취급 독립책방과의 협업 및 소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용자에게 독립출판물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북큐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역 내 독립출판물 작가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매 달 주제에 맞는 사서추천도서 전시에 독립출판물도 추가하여 지속적인 도서 노출을 하고 있으며 책 마다 포스트잇을 부착하여 간단한 도서 소개 및 저자의도를 적어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C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 관리와도 연결되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큐레이션) 형태로 소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열람실을 운영하면서 독립출판물을 별도의 서가를 이용하여 비치만 했을 때 보다 전시(큐레이션)를 진행하면 열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출까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독립출판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생겼습니다.” (F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이라고 일반도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출판물 작가나 독립출판물 서점운영자들의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만큼, 그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독립서점과 함께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으나 돼지열병발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H도서관 담당자)

4.2.4 독립출판물의 자료조직

독립출판물에 대한 자료조직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주제를 분류할 때 한국십진분류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일부 의견에서는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 분류에 대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독립출판물의 북큐레이션을 통한 전시 및 소개를 위해서는 독립출판물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출판물 대부분이 에세이이기 때문에 십진분류를 통해 주제 분류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독립출판물들이 계속 출판될 것이고, 도서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서확충을 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십진분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도서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 도서는 십진분류법보다는 별도의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용자들이 찾기 쉽도록 예를 들면 문학, 예술, 여행, 매거진, 사진 등으로 섹션을 정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을 편목 할 때에는 편목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독립출판물 내 기본 서지정보가 불분명 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독립출판물의 편목을 위해 국가자료종합목록 내 독립출판물 서지데이터의 추가가 필요하며, 정확한 서지정보 확인을 위해 독립출판물 출판 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제공이 필요하다.

“편목할 때 독립출판물은 일반 단행본처럼 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편목을 참고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가끔 판권지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점 같습니다.” (A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들은 서지정보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편목을 하는 도서관 사서들에게는 불친절한 책들이 많죠, 최소한의 서지정보들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도서관 담당자)

“불분명한 서지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 자체에서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출판사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곤란합니다.” (F도서관 담당자)

4.2.5 독립출판물 제공 서비스 개선 방안

독립출판물 제공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독립출판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들고 있다. 최근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통해 독립출판물이 제공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독립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독립출판물을 모르는 이용자들을 위해 독립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서관에도 독립출판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독립출판물이 일반 단행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 또한 알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 장서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도서 소개, 북큐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출간되는 책들 속에서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별된 주제와 그에 맞는 도서를 구비해야 도서관에서 서비스 하는 독립출판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C도서관 담당자)

“독립출판물 도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인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물 도서에 대해 좀 더 알리고 전시, 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도서관 담당자)

향후 독립출판물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독립출판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과 서지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독립출판물 통합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독립출판물들만 취급하는 알라딘이나 예스24와 같은 온라인 대형 서점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도 독립출판물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쉬워질 것이고 도서관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장서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서지정보의 데이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도서관 담당자)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은 기성 출판물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독자이자 제작자로서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으나, 독립출판물의 이용 기회가 적어 정보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집이 확대되어야 하나 독립출판물의 형태사항과 소량 생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서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출판물을 자료조직하기 위해서는 ISBN 및 CIP 등을 통해 독립출판물에 대한 정확한 서지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독립출판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독립출판물 목록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독립출판 및 독립출판

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형태의 정보원, 정확한 서지정보 제공을 위한 제작자 및 출판사의 노력, 독립출판물 구입을 위한 유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써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독립출판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독립출판물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독립출판물 장서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출판물에 관련한 문헌연구를 통해 독립출판물의 개념과 특징 등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수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제시되었다. 즉, 독립출판물의 개념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주로 다루며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는 것이 독립출판물의 특징으로 확인되었지만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독립출판물을 수용해야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특화하여 수집하고 있는 8개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이용요 구에도 불구하고 소장 시기가 짧아 소장 권 수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이용 대상인 젊은 연령층은 향후 공공도서관

의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립출판물 담당자로 하여금 독립출판물의 장서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 특성, 장서관리, 자료조직,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독립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이용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독립출판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출판물의 수집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였다. 독립출판물의 장서관리를 위해서는 유통시스템의 개선과 이용자 대상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출판물의 자료조직 측면에서도 독립출판물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의 시도가 필요하며, 독립출판물 편목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서지정보 확인을 위한 ISBN 및 CIP 제공이 필요하였다. 독립출판물 제공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독립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통합 플랫폼 그리고 서지정보 제공 필요성이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서로써 독립출판물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독립출판물 목록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공동목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운영하기 위해 편목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에 구축된 독립출판물 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독립출판물을 새롭게 장서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독립출판물 신규목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독립출판 및 독립출판물 정보, 우수 독립출판물 소개, 독립출판물 제작자 및 작가 정보, 독립출판물 제작 과정 및 관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운영과 함께 독립출판물을 소개하고 전시를 통한 북큐레이션, 저자 강연, 독립출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내 서지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독립출판 제작자를 대상으로 출간 독립출판물의 ISBN, ISSN, CIP 발급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출판물에 대한 표준화된 서지정보 제공이 가능해 지며, 공공도서관은 독립출판물에 자료조직을 할 때 불분명한 서지정보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 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독립출판물 구입 시 기존 출판물과 함께 독립출판물 구입이 가능하도록 독립출판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독립출판물 유통시스템에서는 공공도서

관이 독립출판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성 출판물과 달리 일괄 구입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업무 부담과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독립출판물도 기존 출판물유통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독립출판물 제작자 및 출판사 또는 독립서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독립출판물 제작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서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독립출판물은 보다 정교하게 장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다양한 독립출판물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 지도록 하며, 독립출판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독립출판물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서 제작자와 소비자인 이용자를 이어 주는 순환구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구선아, 장원호. 2018. 독립출판 증가현상의 사회적·심리적 요인. 『지역사회학』, 19(1): 103-128.
- [2] 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 '소규모 비주류 독립출판, 도서관에서 만난다'. [online] [cited 2019. 10. 1.] <http://www.nl.go.kr/nl/commu/libnews/article_view.jsp?board_no=7829¬ice_type_code=3&cate_no=0>
- [3] 권수빈. 2016. 독립출판물 구성에 관한 분석. 『인문사회 21』, 7(6): 841-857.
- [4] 동네서점. [online] [cited 2019. 9. 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05317&memberNo=1990002&navigationType=push>>

- [5] 스토리지북앤필름. [online] [cited 2019. 9. 30.] <<http://www.storagebookandfilm.com/>>
- [6] 스토리지북앤필름. 2017. 『INDIE BOOK INDEX 2016』. 서울: 스토리지북앤필름.
- [7] 유어마인드. [online] [cited 2019. 9. 30.] <<http://your-mind.com/>>
- [8] 정준민. 2018.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 독립출판을 통해 바라본 출판과 도서관의 상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1-51.
- [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online] [cited 2019. 9. 30.] <<http://lib.jeju.go.kr/>>
- [10] 풀뿌리독립출판협회 설립위원회. [online] [cited 2019. 9. 30.] <<http://www.koreaipub.or.kr/defaul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u, Suna and Jang, Wonho. 2018.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for the Increase of Independent Publication." *Korean regional sociology*, 19(1): 103-128.
- [2] National Library-Press Release 'Small Non-Mainstream Independent Publishing, Meet at the Library'. [online] [cited 2019. 10. 1.] <http://www.nl.go.kr/nl/commu/libnews/article_view.jsp?board_no=7829¬ice_type_code=3&cate_no=0>
- [3] Kwon, Su Bin. 2016. "Analysis of Construction in Independent Publicatio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6): 841-857.
- [4] Neighborhood Book Shop. [online] [cited 2019. 9. 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05317&memberNo=1990002&navigationType=push>>
- [5] Storage Book and Film. [online] [cited 2019. 9. 30.] <<http://www.storagebookandfilm.com/>>
- [6] Storage Book and Film. 2017. INDIE BOOK INDEX 2016. Seoul: Storage Book and Film
- [7] YOUR-MIND. [online] [cited 2019. 9. 30.] <<http://your-mind.com/>>
- [8] Chung, Jun Min. 2018. "A Library As a Publishing Platform: on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21-51.
- [9]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Library. [online] [cited 2019. 9. 30.] <<http://lib.jeju.go.kr/>>
- [10]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Grassroots Independent Publishing Association. [online] [cited 2019. 9. 30.] <<http://www.koreaipub.or.kr/default/>>